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12월 22일(수) 총 3매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담 당 자	• 유형문화유산담당 오정근 ☎440-4481 • 담당자 김기환 ☎440-4482	
사진	▣ 없음 □있음	참고자료	▣ 없음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민주화·노동운동 건축자산 체계적 보전방안 추진

- 인천시,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관리 TF 제2차 회의 개최 -

인천광역시는 근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제2차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관리 TF’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안영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련 부서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활용·매입 등 인천시 근대문화유산 관리 기본방침 설정 △인천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근대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차 회의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다음은 TF 회의를 통해 마련한 주요 근대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계획이다.

▲인천 민주화·노동운동 건축자산 보전·관리

인천 고유의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닌 민주화 건축 자산이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DB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화 건축자산을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방안을 수립해 금년 말까지 민주화 건축자산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DB를 구축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조사된 민주화 건축자산을 평가·분류해 요건 충족 시 문화재로 등록하고, 그 외는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연계해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개항장 소금창고 가치평가 및 활용방안

개항기 소금창고를 인근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인천시민愛집, 이음 1977 건물과 연계해 개항장 역사산책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소금창고 활용방안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11월에는 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원형보존과 활용성 측면에서 교통 약자 배려를 위한 시민 편의시설 신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애관극장, 옹진장학관

재개발조합 및 교회 측과의 4차 협의회를 진행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향후 상호 간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와의 6차 간담회, 1회 토론회를 진행한 애관극장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 중이며 옹진장학관은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감안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해 옹진군청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시는 앞으로 추가 TF회의를 개최해 근대문화유산 관리의 기본방침 마련과 함께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TF회의를 통해 개발·보존·활용 등 내재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화 과정에서 근대 문화유산의 멸실·훼손과 보존과 개발의 사회적 가치 충돌이 빈번해지자 지난 9월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관리 TF를 구성해 지난10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